

서울시, 관내 교회 7919곳 안전점검

침탑 설치여부·시설 노후도 조사

호우·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안전등급 따라 침탑정비 시정명령 침탑 철거비 최대 400만원 지원

서울시는 강풍에 취약한 '교회 침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침탑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시즌에 대비해 시민 일상 속 안전을 지키고 자 내달 말까지 관내 교회 7919곳의 침탑 설치 여부와 시설 노후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구조전문가와 함께 ▲침탑의 흔들림 ▲기울어짐 ▲구조물 상태 ▲용접 상태 ▲주요부재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등급(A~E)을 매기는 방식으로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나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침탑을 정비하도록 시정명령



강풍으로 인한 교회 침탑 추락 사고 사례. /서울시

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8월 말까지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400만원까지 침탑 철거비를 지원키로 했다. 구청은 11월 말까지 철거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높이 4m 이상인 침탑이 달린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 전 배치도, 구조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 8m 넘는 경우)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본격적인 태풍 시즌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방치된 '교회 침탑'을 점검하고, 철거비를 지원해 철거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철거 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침탑 소유자, 관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하세요"

21일부터 주민등록 소재 구청서 접수 인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서울시 예술인 중 가구원 중 위소득 120% 이하인 자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

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나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

75억 6000만원 예산 투입

서울시는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를 줄일 뿐 아니라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13만원의 요금 절감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75억6000만원(3만 7000대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민간 보육

원, 민간경로당 등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교체를 우선 지원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37만대를 보급했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통해 질소 산화물 740t, 이산화탄소 7만1000t을 절감한 효과를 거뒀다"면서 "또한 관내 약 4만9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인 도시가스 2938만㎥를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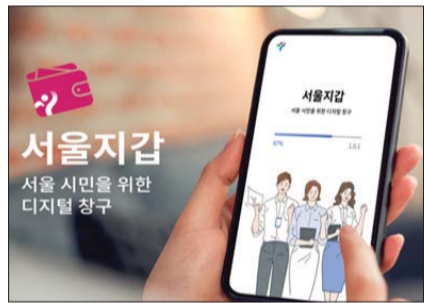
"전자증명서 보관, 서울지갑에 맡기세요"

서울시 공공서비스앱 서울지갑 출시 정부24 발급 100종 전자증명서 보관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전자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나 꺼내볼 수 있는 공공서비스 앱 '서울지갑'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갑 앱의 주요 기능은 ▲전자증명서 보관·제출 ▲복지서비스 자격 확인 및 신청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서울시 마일리지 조회 서비스 등이다.

먼저 시는 '정부24'에서 발급하는 10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서울지갑 앱에 보관하고 필요시 바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



서울지갑 앱 홍보이미지. /서울시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증명서들을 앱 하나에 모두 저장해두고 언제든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앱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행정정보가 연계돼 청년월세 등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를 증명서류 제출 없

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보험부과액 조회 동의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없이 디지털 서울지갑 앱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도 할 수 있다. 앱 내에서 '서울패스'에 가입하면 된다. 서울패스는 시민들이 모바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만든 간편인증 서비스다. 서울패스를 사용하면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QR코드나 인증번호 입력으로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보존부적합 사유지 매각 추진

시 재정확충, 토지활용 불편 해소

고양시는 사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산 보존과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신규 세원은 발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처분하여 시 재정을 확충하고 실소유자의 토지활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미 고양시는 상반기에 군부대가 관행적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16,907㎡를 96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는 국방부가 지불한 공유재산 보상액으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더불어 관내 보존부적합 및 활용가치가 없는 사유지 또한 214억에 매각했다.

이 고양시는 "성사혁신지구" 인근 고

양경찰서(원당지구대)가 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현재는 용도가 폐지된 주교4소공원 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교환을 추진하여 상호간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는 사유지 현황을 조사해 군부대, 교육청, 소방서 등이 무상 점유·사용하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공유재산의 가치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매쉬코리아 경기·인천 '부릉 프렌즈' 운영

실제 주행거리 기반 배송오더 배정

'부릉 프렌즈'가 서울에 이어 경기·인천 지역으로 확대된다.

IT 기반 유통물류 브랜드 '부릉(VR OONG)'을 운영하는 매쉬코리아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배송 플랫폼 '부릉 프렌즈'를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추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릉 프렌즈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전거와 키보드, 도보 등으로 24시간 원하는 만큼 일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송 플랫폼이다. 기존 서

울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서비스 권역에 경기도와 인천 지역을 새롭게 추가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부릉 프렌즈 서비스 오픈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부릉 프렌즈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IT 솔루션이 실제 주행거리 기반의 최적화된 배송 오더를 배정한다.

배송 오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간 외에도 오랜시간 대기 없이 꾸준한 배송을 수행할 수 있다.

/김순복 수습기자 sunbok@

오늘의 날씨

7월 14일 (수) 음력: 6월 5일

수도권 날씨 26~3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4/32, 동두천 24/31, 가평 23/32, 파주 24/32, 서울 26/32, 양평 24/33, 수원 26/32, 용인 26/32, 평택 24/32, 백령도 22/25, 인천 25/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도쿄올림픽 코 앞에 두고, 방위백서로 "독도는 일본땅"
▲도시민단체, 도쿄올림픽 취소 소송... "시민의 생명 위협" /사진 뉴시스

▲WHO, 부유한 나라에 "추가 접종 대신 가난한 나라와 백신 공유" 호소
▲中 단속 여파...6월 암호화폐 거래량 40% 급감



▲중국 쓰촨성 홍수로 이재민 72만명... 베이징에 외출자제령 /사진 뉴시스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지 또 기소... 부패 등 4개 혐의